

언어 장벽 공짜로 뚫는다... ‘어학 나라’ 인기

저소득층 대상 온라인 어학강좌

신청과목 무제한·수준별 학습

광주복지재단, 내달 7일까지 접수

#1. 초등학교 6학년인 A(13)양은 유독 영어가 약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탓에 학원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했다. 그러던 중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인 ‘빛고를 어학 나라’를 접했다. A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어린이영어’ 강좌를 신청했다. 영어에 재미가 붙었고, 성적도 올랐다. 자신감도 ‘업’됐다. A양은 올해 수준을 한단계 올려

‘영어회화’ 강좌를 들을 생각이다.

#2. 한자 세대인 전규종(66)씨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빛고를노인건강다운을 통해 ‘빛고를 어학나라’를 알게 됐다. 1년간 중국어를 수강했고, 올해도 지속할 계획이다. 하나 더 영어 강좌도 신청할 생각이다. 온라인으로 강좌를 듣기 때문에 2개 과목 수강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늘어가는 중국어 재미도 솔솔해 친구에게도 권할 생각이다.

저소득층 가정 학습지원 프로그램인 ‘빛고를 어학 나라’가 인기다. 광주시가 지난해 처음 시행했는데 5131명이 혜택을 누렸다.

‘빛고를 어학 나라’는 광주시가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시민복지 실현을 위해 외국어교육 업체인 ㈜일공일랩(101Lab)의 기부를 받아 온라인으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강 대상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이다.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이상부터 학습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성과를 이어 올해도 ‘빛고를 어학 나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

강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7일까지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www.gjwf.kr) ‘빛고를 어학 나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어학 복지 수강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24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온라인으로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외국어 216개 강좌를 무료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신청과목에 제한이 없어 개인별 수준에 맞는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생활영어회화, 원어민을 통한 발음 교정 클리닉 등도 마련된다.

문의 광주복지재단 복지사업팀 062-603-8340.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복지 활기 넣을 ‘복둥이’ 모여라

2기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광주복지재단(대표 장현)은 다음달 14일까지 대학생 서포터즈 ‘복둥이’ 2기를 모집한다.

‘복둥이’는 ‘복을 타고나 행복하게 자라는 어린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복지’의 의미를 덧붙여 만든 ‘복지둥이’의 줄임말이다.

재단과 복지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재단 공식 서포터즈다.

모집 대상은 광주 소재 대학교 사회복지관련학과 재(휴)학생으로, 복지분야에 관심이 높고 SNS 활용에 적극적인

대학생이다. 4명이 1개조를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 지원서는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www.gjwf.kr)에서 내려받아 메일(milk8515@naver.com)로 보내면 된다.

2기 복둥이들은 다음달 28일 발대식을 가진 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이들은 조별로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재단 각종 사업 안내, SNS 매체를 통한 포스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련 캠페인 등 재단 홍보 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문의 광주복지재단 복지사업팀 062-603-834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직업만족도 판사 1위·도선사 2위

도선사가 판사에 이어 직업만족도 2위에 올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621개 직업종사자 1만912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6년 직업만족도 조사’ 결과다. 조사에서 고용정보원은 발전 가능성, 급여, 직업 지속성, 근무환경, 사회적 평판, 직무만족도 등을 따졌다.

1위는 판사였다. 급여나 지속성, 직무만족도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눈에 띄는 건 도선사였다. ‘세월호가 도선사의 도움을 받아 목포신항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을 접하긴 했는데, 도선사는 뭍하는 직업이길래 판사에 이어 2위에 올랐을까?

도선사는 항구에 선박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배의 입·출항을 인도하는 직업이다.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에 탑승해 운하 혹은 강을 항해하는 일을 하며 부두에 접안이나 이안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것이 주임무다.

도선사가 되려면 6000t급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어야만 정부의 도선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연간 선발인원은 15~20명 내외이고 현재 국내 도선사는 250

여 명이다. 도선사의 평균 연봉은 1억 1837만원(2014년 기준)이며 경력에 따라 연봉이 5억원까지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를 인양해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 최중 예인은 도선사가 담당한다. 컨테이너선이나 크루즈선이 정박할 때도 마찬가지다.

직업만족도 상위 20개 직업에는 ‘교육 및 연구 관련직’(대학교 총장, 초등학교 교장, 교수, 연료전지개발연구자, 물리학연구원, 지질학연구원, 초등학교교사)이 7개로 가장 많았다. 또 의사 21위, 중등교사 29위, 변호사 74위, 공무원 86위 순이었다.

자녀에게 대를 이어 권하고 싶은 직업으로는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첫 손에 꼽혔다. 고위공무원, 장학사, 정부 행정관리자 등 공직이 상위권에 속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물리학연구원, 지질학연구원, 연료전지개발과 연구자 등이었다. 급여는 전기감리기술자, 도선사, 외환딜러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근무환경은 성우, 작사가, 학예사와 같은 문화예술 분야가 상위권에 들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만족도가 높은 직업 20개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순위	직업	순위	직업
1	판사	11	연료전지개발및연구자
2	도선사	12	외환딜러
3	목사	13	물리학연구원
4	대학교총장(학장)	14	항공기조종사
5	전기감리기술자	15	변리사
6	초등학교교장(교감)	16	지질학연구원
7	한의사	17	초등학교교사
8	교수	18	관세행정사무원
9	원자력공학기술자	19	행정부고위공무원
10	세무사	20	발전설비기술자

아직도...3명 중 2명 “배우자에 맞지도 않는다”

여가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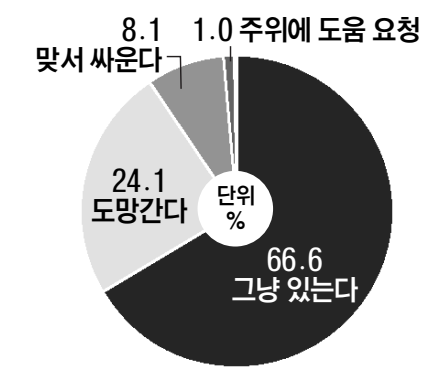
부부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맞지도 아무 대응 없이 그냥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인학대는 대부분 아들이나 딸 또는 사위나 며느리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부부폭력 피해자 66.6%는 폭력 발생 상황에서 ‘그냥 있었다’고 답했다.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은 24.1%, ‘주위에 도움 요청’은 1%에 그쳤다. ‘함께 폭력을 행사’는 응답은 8.1%였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여성의 경우 28.6%가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했고, 이어 ‘배우자이기 때문에’(21.9%),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16.1%) 순이었다. 남성은 ‘배우자이기 때문에’(26.0%),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23.1%)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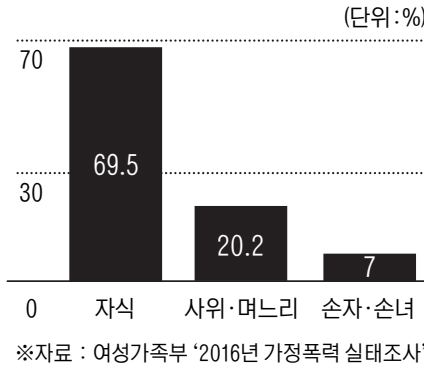
■부부폭력 피해자 반응



부부폭력의 이유로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 ‘성격차이’(여 45.3%, 남 4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적 문제(25.7%, 22.4%), 음주문제(9.6%, 7.5%), 시가·처가 문제(여 9.3%) 등도 싸움의 이유가 됐다.

부부폭력이 처음 발생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이 절반을 웃돌았다.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44.2%였고, 결혼 1

■노인 학대 가해자 유형



년도 지나지 않아 폭력을 경험한 아내도 18.1%에 달했다. 결혼 전 교제기간에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2%나 됐다.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한 남편은 8.6%였고, 이들 대부분 정서적 폭력(7.7%)에 시달렸다. 신체적 폭력, 즉 ‘매 맞는 남편’은 1.6%였다.

자녀학대는 3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1년간 자녀 학대 경험을 본

는 질문에 27.6%(여 32.1%, 남 22.4%)가 ‘있다’고 응답했다. 2013년 46.1%에 비해 18.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노인(65세 이상) 학대 피해율은 감소폭(2013년 10.3%→2016년 7.3%)이 적었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아들과 딸(69.5%)이거나 사위·며느리(20.2%)였다. 손자·손녀의 폭력도 7%에 달했다.

학대 받은 부모는 그 이유에 대해 ‘부양 부담’이 36.4%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29.4%), ‘이유 없이’(15.6%), ‘좋은 부모가 아니어서’(10.4%)라고 응답했다.

가정폭력 신고 의사는 3년 새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가정에서 부부폭력이 발생할 경우 61.4%가 신고의사를 보였다. 2013년 55%보다 6.4% 증가했다. 이웃 가정에서 부부폭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2013년 55.6%, 2016년 65.0%가 신고를 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정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측 일반공업지역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2천2백 ▶ 최저가 27억4천5백
- ★ [대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4,494㎡ 계획관리지역 무인텔신축 최적합지 감정가 10억3천3백 ▶ 최저가 5억7천8백
- ★ [사무실] 전남 나주시 보산동 창고 및 사무실 토지 1,445㎡ 건물 301㎡ 감정가 3억3백 ▶ 최저가 2억1천1백
- ★ [무인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객실 28개, 토지 1,373㎡ 건물 1,908㎡ 감정가 45억 1천만 ▶ 최저가 31억5천만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종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 · 투자가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 ★ [토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답 34,085㎡ 분할매수가 매매가 상당후절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 대 · 임야 52,299㎡ 분할매수가 평당 4만5천 (협의가)

공인중개사 김 재 훈 062-714-2251